

## 7. 해방후

1949년 8월 14일, 순천읍이 부(府)로 승격되고 순천군이 승주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순천부는 순천시로 승격되어 군에서 분리되었고 도사면 6리와 해룡면 북부의 3리가 순천시에 병합되었다. 그와 함께 나머지 11면만이 승주군 소속이 되었다.

1964년 순천시의 33개 법정동이 16개 행정동회로 조정되었다. 이때 와룡·삼거동을 합하여 용수동으로, 옥천·영동을 합하여 영옥동으로, 행동·금곡동을 합하여 행금동으로, 가곡·용당·석현을 합하여 삼산동으로, 덕암·생목·연향을 합하여 덕연동으로, 남정·인제를 합하여 남제동으로, 동의·중앙·남내를 합하여 중앙동으로, 교량·홍내·대룡을 합하여 대평동으로, 덕월·야흥·오천을 합하여 덕흥동으로, 대대·인월·안풍을 합하여 인안동으로, 왕지·조례를 합하여 왕조동으로, 매곡, 조곡, 풍덕, 저전, 장천의 5개 동은 그대로 두었다.

1973년 승주군 쌍암면 석흥리가 낙안면에, 보성군 문덕면 한천리가 송광면에 편입되었다. 1983년에 곡성군 석곡면 운용리가 주암면에 편입되었고, 1985년 쌍암면이 승주읍으로 개칭되면서 승주군의 치소가 되었다. 1987년 해룡면 북성리 일부가 광양군 광양읍으로 편입되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순천시(88.63km<sup>2</sup>)와 승주군(816.52km<sup>2</sup>)이 재통합하여 순천시(905.15km<sup>2</sup>)라고 하고 16동, 1읍, 10면을 관할하고 있다.

### 동 행정구역

행정동	법정동
용수동(龍水洞)	삼거동(三巨洞) 와룡동(臥龍洞)
영옥동(榮玉洞)	옥천동(玉川洞) 영동(榮洞)
행금동(幸金洞)	금곡동(金谷洞) 행동(幸洞)
행정동	법정동
매곡동(梅谷洞)	매곡동(梅谷洞)
삼산동(三山洞)	가곡동(佳谷洞) 석현동(石峴洞) 용당동(龍堂洞)
조곡동(稠谷洞)	조곡동(稠谷洞)
덕연동(德蓮洞)	덕암동(德岩洞) 생목동(生木洞) 연향동(蓮香洞)
풍덕동(豐德洞)	풍덕동(豐德洞)
남제동(南蹄洞)	남정동(南亭洞) 인제동(麟蹄洞)
저전동(楮田洞)	저전동(楮田洞)
장천동(長泉洞)	장천동(長泉洞)
중앙동(中央洞)	남내동(南內洞) 동의동(東外洞) 중앙동(中央洞)
대평동(大坪洞)	교량동(橋梁洞) 홍내동(鴻內洞) 대룡동(大龍洞)
덕흥동(德興洞)	덕월동(德月洞) 오천동(五泉洞) 야흥동(也興洞)
인안동(仁安洞)	대대동(大垈洞) 인월동(仁月洞) 안풍동(安豐洞)
왕조동(旺照洞)	왕지동(旺之洞) 조례동(照禮洞)

읍·면 행정구역

읍·면명	리 명
승주읍	구강리 남강리 도정리 두월리 봉덕리 서평리 신성리 신전리 신학리 월계리 유평리 유흥리 죽학리 평중리
주암면	갈마리 고산리 광천리 궁각리 대광리 대구리 백록리 복다리 비룡리 어왕리 오산리 오곡리 주암리 죽림리 창촌리 풍교리 한곡리 행정리
송광면	구룡리 낙수리 대곡리 대흥리 덕산리 봉산리 삼청리 신평리 신흥리 오봉리 우산리 월산리 이읍리 장안리 후곡리
외서면	금성리 반룡리 신덕리 쌍률리 월암리 장산리 화전리
낙안면	건암리 교촌리 금산리 남내리 내운리 동내리 목촌리 상송리 서내리 석흥리 성복리 신기리 옥산리 용릉리 이곡리 창녕리 평사리 평촌리 하송리
별량면	구룡리 금치리 대곡리 대흥리 덕정리 동송리 두고리 마산리 무풍리 봉림리 송기리 송학리 쌍림리 우산리 운천리 원창리 죽산리 학산리
상사면	도월리 마륜리 봉래리 비촌리 쌍지리 오곡리 용계리 용암리 응령리 초곡리 홀산리
해룡면	남가리 농주리 대안리 도룡리 복성리 상내리 상삼리 선월리 선학리 성산리 신대리 신성리 용전리 월정리 중흥리 하사리 해창리 호두리

읍·면명	리 명
서 면	구만리 구상리 대구리 동산리 비월리 선평리 압곡리 운평리 죽평리 지본리 청소리 판교리 학구리 흥대리
황전면	과목리 금평리 내구리 대처리 덕림리 모전리 봉덕리 비촌리 선변리 수평리 월산리 죽내리 죽청리 평촌리 황학리 회룡리
월등면	장평리 계월리 농선리 대평리 망룡리 송천리 신월리 월룡리 월림리

참고자료

『삼국사기』 지리지.  
 『고려사』.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조선금속총람』, 경인문화사, 1974.  
 이기백, 「신라사병고」, 『역사학보』9, 1957.  
 윤무병, 「고려시대 주부군현의 영속관계와 계수관」, 『역사학보』 17·18합, 1962.  
 이기백, 「고려 지방제도의 정비와 주현군의 성립」, 『고려병제사 연구』, 1968.  
 변태섭, 「고려 전기의 외관제」, 『한국사연구』2, 1968.  
 박한설, 「후삼국의 성립」,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1978.  
 김두진, 「고려 광종대의 전제왕권과 호족」, 『한국학보』5, 일지사, 1979.  
 이수건, 「한국에 있어서 지방사 연구의 회고와 현황」, 『대구사학』 20·21합집, 1982.